

전북 탄소중립 실천 방안·과제 등 논의

제1차 탄소중립 포럼... 전문가 등 80여명 모여,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 초청 특강 진행

전북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전라북도 탄소중립 포럼을 열고 전북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전북도와 전북 탄소중립 지원센터(센터장 장남정 박사) 주관으로 전문가와 민간단체, 도의원, 도청 및 14개 시·군 공무원 등 80여명이 함께 했다.

전라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고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도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슈의 대응 및 지속적인 센터 신규사업을 모색하고자 2023년 제1차 전라북도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기후위기 부의대 전환 저자)는 '기후위기 시대, 한국경제 대전환'이란 주제로 명사특강을 진행했다.



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전라북도 탄소중립 포럼을 열고 전북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전북도와 전북 탄소중립 지원센터 주관으로 전문가와 민간단체, 도의원, 도청 및 14개 시·군 공무원 등 80여명이 함께 했다.

홍 교수는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세계 무역질서가 탈탄소 무역규범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탈탄소 경쟁력은 기후 경쟁력이며, 기후경쟁력은 곧 기업경쟁력이다"고 강조했다.

임성진 탄소중립 포럼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에 좋은 여건을 갖춘 전북이 미래 산업 분야를 선점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전북 탄소중립 포럼 출발이 전라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위원들의 제안이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전북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 및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립 포럼은 민간단체, 전문가, 도의원, 행정 등 29명의 위원(위원장 임성진 전주대 교수)으로 구성됐으며, 매분기 2개 분과(정책기획·참여실천)로 현안에 대한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도, 2024년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접수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서 접수... 최대 170만원/ha 지급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지역 경관 꾸러 관광 등과 연계

전북도는 2024년도 경관보전직불금을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식품부의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과 연계하는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대상작물은 대표적인 경관작물인 구절초, 국화류 등과 밀, 보리 등 준경관작물, 경관·준경관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준경관초지다.

이들 작물을 재배하면 경관작물은 ha당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원, 준경관초지는 ha당 45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역축제,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며,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산화된 농지

다.

또, 초지는 2017~2019년 조건불리 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고, 실제 이용·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해당 마을에서 경관작물 재배 및 관리활동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경관보전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마을 경관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시행 전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아 추진되며, 내년도 경관보전 직불금은 마을 경관보전 추진위원회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전년도 도·농 교류

연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전북도는 자체사업으로 경관보전 특화단지 선정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경관보전직불제 신청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제 지원대상이 아닌 작물이어도, 경관 형성뿐만 아니라 경관작물을 가공 및 제품화해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견인할 특색있는 품목이라면, 도 차원에서 검토 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월에서 12월까지 사업대상 지구 선정 후, 다음 연도 4~5월(동계작물), 9~10월(하계작물)에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각각 6월(동계작물), 12월(하계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와 2023 새만금 세계스쿠트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이사장 김동수)는 19일 전북도청 잔디광장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쿠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기념하는 조형물 '새버미·새꾸미' 설치 기념행사를 열었다.

잼버리 성공개최 위한 조형물 설치

도, NH농협·전북은행 후원 '새버미·새꾸미' 설치 행사

전북도와 2023 새만금 세계스쿠트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이사장 김동수)는 19일 전북도청 잔디광장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쿠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기념하는 조형물 '새버미·새꾸미' 설치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기념하는 조형물은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전북은행의 후원을 통해 (유)디자인연구소두드림 대표 이사 이은희 작가가 제작했다.

'새버미'는 백두산에 사는 영험한 동물이자 스쿠트에서 강조하는 용감함을 상징하는 호랑이를 의인화한 2023 새만금 제25회 스쿠트 잼버리 공식 캐릭터이고 '새꾸미'는 새버미의 친구로 힘찬 날갯짓을 하며

전북도청 잔디광장에 설치된 공식 캐릭터 '새버미'와 서포터즈 상징물 '새꾸미'는 조형물 설치로 이간에도 사진 촬영이 가능해 앞으로 4월 19일부터 약 한 달간 도민들에게 잼버리 포토존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상윤 전북도 지지행정과장은 "세계 최대의 축제가 호랑이의 용맹성과 주작새의 화려함을 담아내, 도내 청소년들과 도민들의 성공개최 기원을 더 큰 기운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기념 행사는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오후 5시 35분 오픈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행사, 축하공연, 부스 운영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북도청지점장 신지식장학회 백승기 슈퍼바이저와 잼버리 지역홍보단 허경희 단장 등 10여 명의 서포터즈들이 참여해 행사에 열기를 더했다.

전북도청 잔디광장에 설치된 공식 캐릭터 '새버미'와 서포터즈 상징물 '새꾸미'는 조형물 설치로 이간에도 사진 촬영이 가능해 앞으로 4월 19일부터 약 한 달간 도민들에게 잼버리 포토존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상윤 전북도 지지행정과장은 "세계 최대의 축제가 호랑이의 용맹성과 주작새의 화려함을 담아내, 도내 청소년들과 도민들의 성공개최 기원을 더 큰 기운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기념 행사는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오후 5시 35분 오픈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행사, 축하공연, 부스 운영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축산물 수출 촉진 협의회 개최

전북도는 올해 농수산물 수출 6억 달러 달성 등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3년 축산물 수출 촉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비롯해 수출 축산물 검사기관 축산물 검역기관 2개 수출지원기관 및 11개 수출기업이 참석해 올해 축산물 수출 계획을 공유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올해 농수산물 수출 6억 달러 달성, 2026년까지 9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3개 분야 9개 사업에 44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축산물 분야도 적극적인 시장 공략으로 전북도 수출 목표 달성을 분담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월)이 예정되고 있어 소고기·돼지고기의 수출국이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전북도와 수출업체가 정부 협상 진행에 맞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해 축산물 수출기업에 국·별 수출 검역 협상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업체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우수'

이동급식카드 가맹점·대기오염 정보 등 신규 34개 데이터 개방·일자리 창출 성과 등 인정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57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평가항목인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에 공공데이터 교육

훈련, 신규데이터 개방 및 발굴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활용도 제고 등 총 16개 지표에 대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기관 운영 실적을 평가했다. 이에 전북도는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평가에 적극 대비했다.

먼저 도 실과 데이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과 시각화 중심의 데이터 분석 툴인 태블로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실무교육 등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8회 실시했고,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에 매월 참여 및 기관별 순회 개최를 통해 23개 기관이 협업 및

민·관·학 교류를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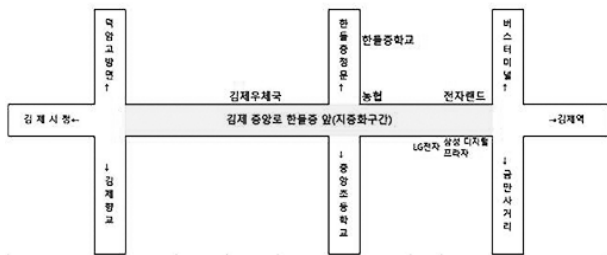
또한 데이터 개방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도민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이동급식카드 가맹점, 대기오염 정보 등 신규개방 데이터 34건을 발굴하고 개방했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와 데이터 활용 기업지원 등을 통해 민간 활용도도 높였다.

더불어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청년인턴을 채용함으로써 15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거뒀다. /김재훈 기자

전력공급선로 지중화 확정지역 공고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지중화 확정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중화 공사의 목적: 학교 주변 통학로(한들중학교) 환경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2. 지중화 확정지역: 김제시 중앙로(한들중 ~ 시청사거리) 0.85km
3. 지중화공사 예정기간: 2024년 3월 ~ 2024년 12월
4. 신·중설 고객: 지중화공사 시행 기준일: 공고일로부터 30일 초과일
5. 지중화 지역 약도



6. 지중화 공사의 시행범위

- 지자체가 지중화를 요청한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가공설비와 도로와 교차하는 1볼트 이내의 지선도로에 접하는 지역 내에 시설되어 있는 가공설비
- 이면도로가 없는 지선도로(막다른 골목)인 경우에는 간선도로로부터 50m까지의 가공설비

7. 고객 안내사항

지중화 확정지역의 신·중설 고객은 신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면 전기공급약관 및 신규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한 지중화 확정지역에서의 신·중설 업무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4월 20일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사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